

宗敎信仰과 宗敎研究

蔡 弼 近

(一)

宗敎學者라고 다 宗敎를信仰하는者가 안이오, 宗敎信者라고 다 宗敎를理解하는者가 안하다。政治學家라고 다 政治家가 안하며, 倫理學家라고 다 道德家가 안한것과 맞치 한가지다。近年에 와서는 學問의 研究가 漸々々 專門的으로 되어가며 分業的으로 되어가는 同時에批判的으로 되어가며比較的으로 되어간다。그까닭에內容을 深厚하게하는偏도있고 範圍를 廣大하게 하는偏도있다。그런則學科의數가 만하지면서도 여러學科의相互關係가 複雜하여질것이다。爲先 宗敎哲學이니 宗敎倫理學이니 宗敎心理學이니 宗敎社會學이니 宗敎歷史이니 宗敎法制이니하는 몇가지學問만列擧하여 보아도 宗敎學안에만흔 分科가成立될수있고 만흔學科에서 宗敎와關係하는것이 알니워 진다。宗敎에對한研究가 廣汎하고 複雜하여 질사록 宗敎에對한信仰도 自然얼마만치 變調를나르키지안할수는 업다。宗敎에對한研究와 宗敎에對한信仰이 彼此에關係하는理由는研究와 信仰이모도다 人生의意識을 經由함이오 宗敎에對한研究와 宗敎에對한信仰이 一致하지안한것은 研究은 普通으로理知를 根抵로하며 信仰은主張으로情意를 經路로하는싸담이다。이제心理學에서 實例를들어본다하면 우리가憤怒할 적에自體를 研究하여 보려는세각으로 主觀的感情的 憤怒를 客觀的 理知의對象으로 삼는다면 於焉間에憤怒가 消滅되고 말음으로 研究의對象이되지못하는것이다。이와갓치 理知가 感情과完全히併行하기 어렵거나와 그와 反對로 感情도 理知와完全히 併行하기 어렵은싸담에 極端의 憤怒를 發한 卽에는 憤怒를心理的으로 研究하라는 생각도 낄수 업는것이다。이와갓치 宗敎에對하여 熱烈한信

仰을 所有하였을 지에는 理性的으로 宗教를 研究하라하는 생각이 적은 것이오 그와 反對로 宗教에 對하여 銳敏한 考究를 加할 때에는 信仰心이 熱烈의 度를 減하기 쉽은 것이다。이 意味에서 宗教學家和 神學者들의 信仰은 多로 普通의 信者보다 淺薄할 수도 잇을 것이다。그러나 일의도 말기 한바와 같치 우리가 意識的 統一이 잇는 以上에는 宗教에 對한 知識이 도모지 잇는 信仰이 成立되 困難한 同時에 또 信仰에 아모 關心이 잇는 宗教研究도 잘할 수 잇을 것이다。

(二)

우에서도 몇마데 叙述한바어니와 近年에와서는 여러가지 並立되여 잇는 宗教學안하라 現代에는 顔目을 隱의 掩蔽한 過去の 宗教들까지라도 넓히 觀察하고 깊히 考究하여 比較的研究가 盛行한다。또 神聖不可侵의 것이오 絕對價値 所有의 것으로 녀이던 經典이라도 縱的으로 解剖하고 部分的으로 全體的으로 批判하여 結論과 斷案을 任意로 나리우려 한다。그밖에도 考古學과 地質學과 生物學과 人類學에서 取扱하는 여러가지 材料를 採用하여 宗教를 研究하는 偏이 잇스며 民族心理學과 個人心理學과 變態心理學과 行動心理學等의 各種 心理學的 見地에서 宗教를 研究하는 偏이 잇다。또 宗教史와 같은 것은 社會學과 人種學과 土俗學과 한세文化史의 見地와 質料와를 應用하여 面目을 一新케하는 感想이 잇다。

宗教를 一種의 重要한 文化의 事實이라고 觀察하여 文化의 產出大同母로, 或은 文化의 指導原動力으로 取扱하며 文化의 모든 現象과 잇더케 交涉하였는지 或은 勢力의 消長이 잇더케 變遷하였는지 考察한다。크게 區別하여 東洋文化와 西洋文化의 特色에 宗教를 合流시켜 考究하는 歷史의 問題는 同時에 人心의 趨向과 思想의 運動에 關係하는 問題에도 脈絡을 通하여 步調를 前進시키는 中이다。畢竟 人類文化의 興亡 盛衰에 關聯한 思想과 研究에서 宗教考察은 過去 歷史의 問題가 될 變안이라 現代에 對한 批評과 將來에 對

한 豫想、乃至指導와도 密接한關係를 가지는데나 르렀다。最近 思想界의 新中心點은 文化問題인 데 宗教가 人生에게 엮여한 位置를 가지는지 宗教의 本務가 무엇인지 指示하는 것은 思索이나 冥想에서 할 것이 안히오 事實研究에서 明確히 하려하는 데 到達하였다고 생각할 만 하다。

이러한 여러가지 方面의 宗教研究를 다만 外面的의 일뿐이오 宗教의 內容에 直接交際를 못한 일이라도 批評하는 이도 업지 아니하다。이러한 批評은 勿論 一理가 잇지마는 批評自體가 亦是그 러한 研究의 外面만을 皮相的으로 觀察한데 지나지 안는 것이다。웨 그러나 하면 宗教의 生命은 信仰에 잇스며 信仰에는 內心的 經驗으로 他人에게 傳達할 수가 업고 又 筆舌로는 描寫할 수가 업는 神祕의點이 잇지마는 비록이런 主觀的方面의 것이라 할지라도 畢竟 人生의 心理的產物됨에는 틀림 이업는 事實이다。다시 말하면 外面的研究라 할지라도 宗教의 內容에 도모지 關係가 업슬 수는 업다 假令信仰의 內心的 經驗이 超自然的 靈感으로 부러 發生된 것일지라도 그 靈感이 存宿하여야 지고 外部로 發現하는 것은 人生의 精神인 以上에 畢竟 廣義로서나마 心理的研究의 對象이 될 수 잇는 것이다。現수의 宗教研究는 그 精神生活의 實相을 把握하려하는 點에서 信仰을 오직 特殊한 個人의 體驗으로 看做하는 同時에 又 廣汎하게 人類精神全體에 普遍된 問題로 取扱하려 하는 것이 다。다시 말하면 普遍的觀察을 하면서도 個人的特色을 沒却하지 안히하고 平等가운데서 差別을 보 며 差別가운데서 平等을 보랴하는 것이다。이와갓치 同에서 異를 찾고 異에서 同을 찾는 것이 外面的考察에 지나지 안는 것이라고 非難하는 것은 너무酷評이 될 것이다。

(三)

宗教에 對한 研究는 理知的見地에서 出發하는 것이오 宗教에 對한 信仰은 情意的見地에서 發 現하기 쉽은 것이니 맞치 前者는 普遍性에 重點을 두고 後者는 個別性에 重點을 둘 것이다。할하

서 研究의態度는 一般의原則을 定立하러 할것이오 信仰의態度는 神秘的體驗을 重觀하는것이다。 그러나 全體를 睨나서 部分이 업는것이오 部分을 無視하고서 全體가 成立되지 못하느니 만치 研究家는 信者個人的 主觀의內容을 開却히하지 말것이오 信仰家는 萬人에게 擴布된大精神의普遍의發現과 古今에 貫通된 大生命의 永恒的動作을 顧慮하여야 할것이다。

엇던 宗教信者가 宗教學者를對하야 하는말이 宗教를 信仰하지 안히하면서 宗教를研究하는것은 譬喻컨대 물에 드러가 보지도안히하고 水泳을 論하는것과 한가지라 한다。 그와反對로 宗教研究家는 信者보고 하는말이물의深淺도 알아보지 안히하고 막 뛰어드러가는것과 한가지라한다兩便이다 一理는잇지마는 하나만알고 들은모르는 格이다。 理論을 모르고實際에 能한사람도잇는것이오實際를모르면서 理論에長한사람도 잇지마는 한偏에참말 嫻熟하면 다른偏까지알게되는것이오흔한事實이다。 또 어느偏이다른偏보다 낫다는것뿐이지實狀 理論家라고實際에는 소경이오實際家라고 理論에는 병어린것은 極히드문일이다。 이와갓치 宗教를깊히 研究하야完全한 理解를 하는이가普通으로 信仰을가지게되는것이며, 宗教를 熱心으로信仰하야 敬虔한行爲를하는이가 흔히 宗教研究를하게되는것이다。

科學가운데 古生物學과 갓흔것은 研究의材料로 地中에 岩石과 海底의 泥土類를 使用한다。 그 러키때문에 얼년보면 石塊死物을 考究하는것과 갓다。 그러나 古生物學에서 取扱하는것은 石塊死物의 自体가 안히오 그中에서 生物의活躍하던 踪跡을 目標로 삼는것이다。 이런 研究에서 生物學人類學 乃至 宇宙開闢論까지 許多한 發見이생진것을 누구가 否認할것인가。 歷史도 그러하야 歷史의考究가 반드시 過去의 記錄을 穿鑿하는것이 안히오 過去에 活動하던 그生命의 延長이現代를經由하야 未來에까지 展開될것을 發見하는데서 歷史의 本職이 完成되는것이다。 그와갓치 宗教의研究도 古人之遺跡과 過去의記錄을 考察하며 異社會의 風俗과 異宗教의內容을 研鑽하야 그中에서 生命에 充滿한宗教의發現을 알게되는것이다。 人類의 여러가지 生活樣式을 通하야 發現하는

古今東西에 遍在한 大生命에 接觸할 수가 있고 또 그 轉變盛衰에서 進行하며 退步하는 原理公則을 發見할 수가 있고 다시 變種하여 가는 差別性과 遺傳하여 가는 共通性을 明瞭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므로 研究와 信仰은 彼此에 贊助할 수 있는 것인 것이 分明하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自己의 信仰을 回顧하여 볼 것이면 아모 道德的 宗教的의 高尚한 情操가 動機가 되지 못하고 原始的 迷信狀態에 近似한點이 있는 것을 發見한다. 特別히 하나님 의 永遠하신 攝理와 無限하신 恩愛를 忘却하고 自己의 固執과 情慾의 衝動으로 말매얌아 잘못 祈求하고 그 行動한後에 懺悔를 하게 되면 그러한 弊에 덕을 發見한다. 그와 反對로 自己의 信仰이 小規模요 低階級이나마 偉大한 宗教家의 熱烈하고도 敬虔한 信仰에 近似한點이 있는 것을 發見하는 弊도 업지 아니하다. 特別히 良心을 직히고 神을 깃드시게 하며 他人을 奉事한 줄로 생각할 弊에 그리하다. 이와 같이 觀察하던대 野昧한 사람의 原始的 信仰에서부터 偉大한 聖者의 眞正한 信仰에 니르기까지 脈絡의 貫通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意味에서 迷信에 染習된 사람들이 偶像을 奉事하며 굿을 하고 경을 읽는 것을 惻愾히 녀이고 잘 指導하는 것은 可하나 蔑視하고 嘲笑하는 것은 不可한 일이다. 더욱이 信者中에서 教育이나 밖은 이는 不學無識한 이의 信仰하는 態度를 無價値하다고 批評하는 것은 妥當한 일이 안하다.

(四)

나 이제 結論으로 드러가려 한다. 우리 朝鮮에 信者의 數는 相當히 多數에 達하였다고 할 수 있다. 基督敎만 안하랴 佛敎나 其他 宗教類似的의 團體에도 그리하다. 信者보고 다 宗教研究者가 되라는 것은 勿論 안하다. 그러나 比例에 依하여도 研究者가 너무 少數라는 것을 말할이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信者가 相當한 修養과 相當한 理解를 가지는 것이 더 好한 일이다. 社會의 健康을 圖謀함에 醫師가 必要하지 마는 一般人士가 모두 衛生思想에 豊富한 것이 더욱 必要한 것과 맞치 한가지다.

우리基督敎의 內部的 聖經을 比較的 잘 아는 사람이 더러있고 敎理와制度에 嫻熟한 사람이或間 있다. 그러나 아직너무 少數가 安穩한 敎役者라 할지라도 그집안에 드러가보면 聖經 註釋이라던지 組織神學이라던지 宗敎哲學 갖은冊子가 거의 업다고 할만한일이 안라. 勿論 經濟 上困難도 關係될것이오 語學上不便도 有力한原因이되겠지마는 아모리 그러라 하고서라도 數百人 至 數千人을 對象으로하야 說敎도하고 查經도식히며 勸勉도하고 指導도하는이가 뷔인머리와마른 印설로 그重職에 當한다는것은 참아 못할일이다.

엇더한이는 書籍을 만히 보다가는 異端이나 성기고 岐路로나引導하는 거짓先知者 乃至敵그리 스토의 敎訓에 誘惑이되는날이면 도로히 큰損失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말에도 一理는다. 勿論 우리가 書籍을 본다하야도 되는대로 막우보아서는 안된다. 그러나그러라구서 너무 操心만 하고 너무保守만하여도 敎會는 退步한다. 例話를 들진대 傳染病이 무섭다고 外出도 안히하고 飲食도먹지안히하고 呼吸 도안이하고는 살수가 업는것과 같다. 한거름을 떠나아가서 冒險的으로 傳染病을 考究하기도하고 豫防할方針을 講究하는사람이 생겨야한다. 그러케하다가 不幸히 傳染病에 걸녀서 犧牲이되고 마는이가 間或잇슬지라도 할수업는 일이다. 이것이 도로히 自己犧牲의 奉仕의精神이라고 볼수도 잇는것이다.

이意味에서 나는 朝鮮敎會에 徹底한 研究者가 輩出하기를 切望한다 聖書本文을 研究하는것도 組織神學을 研究하는것도요 敎會의史의考察을 專攻하는것도요 宗敎의心理的考察과社會的考察을 專攻하는것도요. 이러한 各方面的研究家가 敎會內部에잇서야 新時代에適合한 講敎事業도할수가잇 스며 宜敎事業도할수가잇슬것이다. 내가 現下우리敎會에對하야 크게遺憾으로생각하는것은 各敎會에 서하는것이. 敎育機關에서하는것이나 醫療機關에서하는것이나 新聞雜誌機關에서하는것이나 其他모든 活動이 너무內部的이오 消極的인 事實이다. 이러케된다하면 敎會의擴張과 敎會의進歩와 敎會의安

固는希望이업술것이다。朝鮮現狀대로말한다면 다른宗教偏에서 發行하는書籍과雜誌는非基督敎人에게는 勿論이오 基督敎信者에게까지 愛讀되는것이 더러있다。그러나基督敎內에서發行하는것은敎外人에게는 姑捨하고 信者에게라도 歡迎을맞는것이 別로업다고말안하다。이것은깊히考慮할必要가잇는일이다。

朝鮮基督敎人은 一致團結하야 朝鮮社會를基督敎化하기에 邁進하어야한다。아직까지는老人과靑年들이彼此에軋轢하고 有識者와無學者가彼此에批評하야俗談말로 表現한다면犬과猫의於間과는갓치안할지라도적어도 소가닭보듯이는 되어있다。갓흔信者세력도 그리하거니와 갓흔敎役者세력도 그리하야直接敎會에서 使役하는이는 學校事務로 敎會使役을하고잇는 사람을손의보듯하고 敎育에從事하는이는 敎役하는이를 丕關係업는것처럼 보아바리는일이 적지안다。우리朝鮮敎會가 組織時代에드러가라고하는 現今에잇서서 外界思想이 混沌함으로말매암아 躊躇彷徨하고잇는것은 危機라던지안흔危機라고 할 것이다。이와갓치 內艱外患이 重疊한사에 自己의발동이 아직뜨겁지안흔것을理由로하야 傍觀의態度만잡는다면 唇亡齒寒格으로曲突徙薪못한것은 噬臍後悔할날이 머지안할것이다。이意味에서 나는老 少衝突이나 市村相疎와갓흔것이었지기를바라며 朝鮮敎友와外國宣敎師於間에誤解가一掃되기를바라며 信者가운데 理知的研究者와實際的信仰家가 彼此에讓步하야 互相贊助하야 有終에美가잇기를바란다。

우리朝鮮敎會는 信仰偏으로는 그만하면무던하니 이제부터研究偏으로 나아가보자는말이 勿論안하다。宗教에서研究보다는 信仰이더根本的의것이오 더決定的의것인것을 나도잘알고있다。다만우리敎會에는 信仰도 아직 不足하지만은 研究가 더욱 不足하다는것을 力說하는것일이다。研究로써 信仰을더욱 敦篤하게하며 信仰으로써研究를 더욱精確하게하야 兩方面이모도 完全한境域에로 나아가게 하는것을切望한다。우리朝鮮에서 宗教를研究하야 世界的神學者와 宗教學家가 다만一二人이라도나며 價値잇는書籍이 다만一二冊이라도 나기를願한다。무슨方面으로던지 우리가世界에貢獻하는것이 생기여야 그때부터우리의存在가 價値를發揮하게 될것이다。